

# 퇴직불금사업 영북지역 고령 농업인에 인기

✎ 전인수 | ④ 승인 2025.03.19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최대 2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은퇴직불금사업에 착수, 영북 지역 고령 농업인들에게 인기를 끌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박미란)는 고성·속초·양양지역의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참여 접수를 연중 내내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에 매도 혹은 매도 조건부 임대해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매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급 단가를 높이고 지급요건을 개선하는 등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아직 홍보가 덜 된데다 사실상 소유 농지 전부(1000㎡미만 경작 허용되지만 조건 까다로움)를 매도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지난해 영북지역에서는 고성·양양군 고령 농민 5명이 1.5ha를 신청해 매달 330만원을 수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여차피 매도할 계획이 있는 고령 농업인들은 별다른 조건이나 추가 서류 없이 바로 공사에 매도·이양이 가능하고, 공사 외에 매도를 하더라도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신청자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직불금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매도하는 농지이양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 매도 대금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50만원씩, 4ha기준 최대 200만원까지 직불금을 만84세까지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지이양 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연금 월 지급금, 농지임대료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40만원씩, 4ha기준 매월 최대 160원까지 직불금을 만84세까지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또 농지연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지매도 대금까지 받게 된다.

박미란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는 "공사는 농업인들의 생활과 소득안정을 위해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은퇴농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청년농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전인수 jintru@kado.net